김별아의 문학과 삶

할아버지의 육아일기

외출하러 나선 길에 1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니 18층 꼬마가 먼저 타고 있다. 아직 걸음마가 위태로운 돌잡이, 그가 자가용 삼아 타고 있는 유모차의 운전수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이시다.

"손자랑 함께 산책 나가시나 봐요."

"이제는 집 안에서 노는 게 답답한지 자꾸 나가자고 조르네요."

지난겨울을 보내며 아이는 콩나물처럼 불쑥 자랐다. 얼마 전까지 영락없는 젖먹이였는데 이제 제법 말귀를 알아듣는 기색이다. 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걸 눈치 챘는지 또록또록한 눈망울로 할아버지와 나를 번갈아 쳐다본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함박웃음이 번진다.

요즘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손주를 데리고 나온 조부모를 만나는 일이 어렵지 않다. 맞벌이 가정이 늘다 보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엄마 아빠를 대신해 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혼이나 취업 등으로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하는 조손가정 또한 늘어나는 형편이다.

젊은 엄마들의 표현으로 '육아 실미도'라 불릴 정도로 아이 돌보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단한 일이다. 옛말에도 밭을 매러 갈래, 애를 볼래 물으면 차라리 밭을 매러 가는 편이 낫다지 않은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에 부칠 게 분명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들과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불가피한 현실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하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소설가 조정래 선생은 손자라는 존재에 대해 "황혼의 인생을 맞은 사람들에게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우리 부모님만 보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그야말로 금지옥엽으로 받든다. 전화 통화라도 할라치면 정작 딸인 나와는 건성으로 몇 마디 나누다가 금세 "혜준이 좀 바꿔 봐라" 하신다. 손자가 받으면 수화기 바깥으로까지 즐거운 탄성이 들린다. 자식보다 손주에게 더 너그러운 까닭이 자식들과 달리 손주들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조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손주들에게 따뜻한 추억으로 남는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해도 사람살이의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조광조의 제자로 기묘사화와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오랫동안 유배생활을 했던 묵재 이문건이 쓴 '양아록(養兒綠)'을 읽으면 손자에 대한 사랑으로 절절매는 조선 사대부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문건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불운하여 생전에 친자식들을 모두 앞세웠다. 하지만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이문건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사랑이 있었으니, 맏아들 온이 남긴 손자 숙길(후일 수봉으로 이름 바꿈)이었다. 이문건은 58세에 얻은 손자를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기르며 16년 동안 조선 최초의 육아일기인 양아록을 썼다.

'4개월이 되니 들춰 안아도 되고/ 고개를 제법 가누어 잡아주지 않아도 되네/ 6개월이 되어 앉아 있기도 하는데/ 아침저녁으로 점점 달라져 가는구나.'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라고 했던가, 핏덩어리 때부터 직접 기른 정으로 이문건은 손자가 사랑옵아 어쩔 줄 모른다.

하지만 아이는 태어나서 여섯 살 때까지 평생 할 효도를 다한다고 했던가, 병치레나 없으면 다행이다 싶었던 손자가 말이 트이고 머리가 굵어가면서 슬슬 속을 썩이기 시작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란 것은 인륜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 임금을 도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어진 신하가 되라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일단 과거에서 급제를 해야 할텐데…. 할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숙길은 공부보다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싸움질과 술 마시기에 더 흥미가 있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눈을 부릅뜨고 욕을 하는 손자가 술이 깨길 기다려 온 가족이 두들겨 패는 장면에서는 사춘기의 아들 녀석이 부렸던 작패가 생각나 나도 모르게 소리 내어 웃었다.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보다.

결국 이문건은 손자가 열일곱 살이 되었을 때 장가를 가는 것도, 등과하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정성과 사랑은 끝내 말썽쟁이 손자를 임진왜란의 의병장으로 곧추세운다. 때로 기대만큼 실망으로 안타까웠던 할아버지의 소원이 뒤늦게라도 꽃을 피운 것이다.

'커가는 손자 지켜보는 일 즐거워/ 내 자신 늙는 줄도 모르겠네…나를 향해 두 손 들고/ 웃으며 다가오는데 미끄러질까 겁내는 듯도 하구나/ 등을 어루만지고 다시 뺨을 비벼주며/우리 숙길이 하며 끌어안고 환호하네.'

오백여 년 전 선비의 육아일기 양아록 속의 할아버지가 손주의 유모차를 끌고 봄날을 걷는 18층 할아버지의 모습에 겹친다. 사랑은 그처럼 시간에서 시간으로 이어진다.

〈소설가〉

종교칼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의 의미

김 관 수
천주교 광주대교구 청소년사목국장

매스컴을 통해 이미 잘 아시듯이, 8월 14~18일 5일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십니다. 교황님 방한의 목적은 아시아청년대회 참석과 124위 시복식을 주재하시기 위함입니다. 199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여섯 번째 대회를 맞이하는 아시아청년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22개국 청년 2000명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가톨릭청년대회입니다. 비록 2013년 브라질에서 열렸던 세계청년대회에 비하면,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이지만, 대륙별 청년대회로는 아시아청년대회가 유일한 대회인 만큼, 아시아 가톨릭교회는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심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천주교회는 외국인선교사에 의해 가톨릭신앙이 전파된 것이 아닌, 자국민에 의해 천주교 신앙을 이 땅에 뿌리내린 유일무이한 신앙적 열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신앙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기꺼이 내어 놓으셨던 1만여명의 순교자들의 삶이었고, 그 중에서 이미 순교성인으로 추대되신 103위 성인과 더불어 이번 교황님 방한으로 이루어지게 될 124위 시복식의 순교자들입니다.

이분들은 150여 년 전만 해도 이 땅에서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한 시대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분들이 이제는 만인의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124위 시복식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고착화시킨 민족 내부의 반목과 갈등의 해소, 영호남의 대화합과 남북한의 화해, 공생공존 그리고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교황님의 마지막 일정은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되는 한반도 평화와 한민족의 화해를 염원하는 미사입니다. 미사성제는 천주교인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주교의 염원에 박근혜 정부 또한 적극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뿐인 정치가 아닌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통해 교황님의 기도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취임 1년을 맞았던 지난 2월25일 서울광장에 모인 노동계는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부정선거, 사상의 자유억압, 각종 공안탄압과 노동탄압을 토로하며 '유신독재의 부활', '불통의 시대'의 중심에 박근혜씨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손수 호화로운 교황 관저를 마다하시고 수십 년 된 낡은 차를 여전히 타고다니시면서, 또한 길에서 만난 한센병 환자의 이마에 입맞추시고 소년범의 발을 씻겨주며 성폭행당한 여자에게 위로의 전화를 걸기도 하시면서 직접 실천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분의 방한이 박근혜 정권에 주는 의미는 바로 제왕적 권위주의 정치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향해 봉사하는 정부의 모습입니다. 이는 곧, 복음적 실천을 의미합니다.

박근혜씨도 '율리안나'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이기에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20, 26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진정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구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보십시오. 지난 3월20일, 미국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교황님 스스로 낮은 자의 삶을 사시고, 모든 이와 소통하기 위해 섬기는 자로서의 파격적인 행보를 거듭하시니, 작금의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으로 인정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곧, 복음의 실천이 단지 바보스러움이 아닌 현세적인 가치를 초월한 참 기쁨이요 행복임을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3월10일 브리핑을 통해 "청빈한 삶과 이웃사랑의 상징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번 방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가 무엇보다도 먼저 현 정권 안에서 솔선수범하여 열매 맺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이 곧 우리나라의 기쁘고 행복한 축제로 이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기고

강진의 봄

변 길 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강진이 전국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라는 책 덕분이었다. 강진이 고려청자의 주산지였던 것도, 강진이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였다는 것도, 강진에 아름다운 절과 문화유산이 많다는 것도 모두 이 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1990년대의 일이었다. 필자도 학생이었던 시절 1994년 외국으로 유학 가는 친구와 함께 강진을 찾은 것은 이 책 덕분이었다.

하지만 책을 보고 영화를 보면 감흥이 덜한 편이 많듯이, 직접 찾아가 본 영랑생가나 다산초당, 백련사 같은 강진의 랜드마크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절은 황량하고 무뚝뚝해보였고, 복원한 초가집은 고유성이 사라져있었다.

오히려 책에서 소개한 명소보다 더 인상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은 그날 백련사에서 내려오면서 보았던 봄날의 햇발과 푸른 밀, 붉은 황토였다. 붉은 황토 위에 자라는 푸른 밀의 시각적 대조 속에, 봄날 사방으로 뻗친 햇살과 푸른 하늘은 내 인생 처음으로 느낀 강렬한 봄의 아련함이었고, 강진의 인상이었다.

강진의 봄이 내게 다시 찾아온 것은 광주에서 강진으로 거처를 옮긴 윤정현 시인이 강진에서 보낸 2010년 '제1회 백련사 숲 속 음악회' 초대장을 받아들고 나서였다. 시간은 16년이 지났고 이번에는 아내와 두 딸이 함께했다. 이번에는 젊었을 때는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백련사의 동백나무숲이 있었다.

온통 붉디붉은 탐스런 동백꽃송이가 땅에 떨어져 알지 못할 슬픔을 주는 비탈진 숲에는 청중들이 앉아있었고, 그 숲 밑 평평한 곳에서 백련사 앞 강진만을 배경으로 작은 평화음악제가 열리고 있었다. 땅에 떨어진 동백꽃송이처럼 사람들은 발을 모으고 맨땅 위에 앉아서 음악을, 그 시간을 느끼고 있었다. 그 순간에도 동백꽃송이는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날 그 숲 속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올해 윤 시인이 또 강진의 봄을 가지고 왔다. 그가 기획한 강진아트홀에서 열리고 있는 '봄이 오는 소리'(4월27일까지)라는 전시회로 말이다. 이 전시는 시화전 형식을 빌어 '강진을 대상으로 한 시들을 가려 뽑아, 강진과 인근에서 살고 있거나 태어난 미술작가들에게 인연을 무기로, 시각적 형상화를 부탁'해서 구성한 지나가버린 시간들에 관한 전시로서 '그리움, 저 편'에 관한 강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작품들은 훌륭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보여준 적 없는, 그리고 보여줄 수 없는 좋은 전시였다. 말 그대로 이 전시는 강진만의 자생적인 문화의 힘을 보여주었다. 강남의 귀족화랑에서는 모르는 인간과 역사와 땅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 강진과 인연이 있는 시인들과 화가들로 이런 전시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윤 시인의 힘일까? 강진의 힘일까? 강진은 남도답사 1번지로 꼽히지만, 현실은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4만명에 전국 재정자립도 244위를 기록한 농어촌지역이다. 윤 시인이 그의 고향 강진으로 돌아가 강진의 문화기획자로 활동한 지 5년. 나는 안다. 그가 얼마나 외로운 환경에서 문화기획을 하고 있음을. 이 전시는 작위적인 봄의 전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봄의 전시라는 것을.

바야흐로 강진은 봄이다. 강진의 붉은 황토와 푸른 밀밭, 사방으로 퍼지는 햇살, 동백나무숲과 더불어 이제 나는 강진에는 '봄이 오는 소리'가 있어 강진을 봄이라 생각할 것이다. 강진이 윤 시인을 품어주는 넉넉한 고장이고, 외지에서 온 예술인들과 방문객들이 강진을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한, 나는 봄을 생각할 때면 강진을 생각하고, 강진을 생각할 때면 봄을 생각할 것이다.

社 說

공영주차장 바가지 요금, 당국은 뭘 하나

광주지역 공영주차장 위탁업체들이 임의로 주차료를 책정하는 등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광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기본 요금 체계를 따르지 않고 주차료를 올려 받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642개 공영주차장 중 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아 유료로 운영 중인 주차장은 45개소(6238면)라고 한다. 하지만 이들 주차장 중 상당수는 시 조례를 무시한 채 주차료를 올려 시민들이 '바가지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북구청 인근 공영주차장의 경우 조례에 따른 기본 요금은 30분에 300원, 15분 추가할 경우 150원으로 책정됐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2배 이상을 받고 있다. 일부 주차장에선 주차료 문제로 자주 시비가 일어나고, 운전자와 주차비를 흥정해서 받는 사례도 다반사라고 한다.

주차장 위탁 운영업체들은 100면 기준으로 4000만~1억 원이 넘는 위탁료를 내고 운영권을 사들인 만큼 수익을 맞추기 위해선 위법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광주시와 각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한 취지와는 정면 배치된다. 오히려 시민 편의를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해당 자치단체들은 관리·감독은커녕, 위탁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인력 부족과 주차장 위치별 담당자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아예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공영주차장은 말 그대로 주민 편의를 위해 조성한 주차장이다. 광주시와 각 구청은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약 해지와 과태료 부과 등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공용주차장의 주차 실태 조사에 착수, 그 비례에 따라 위탁료를 조정하고, 탄력 요금제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목포대교=자살대교' 오명 씻으려면

지난 25일 밤 목포대교에서 전남도청 소속 여자 공무원(7급)이 몸을 던졌다. 이 여성은 수색에 나선 목포해경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시 북항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목포대교에서는 그동안 투신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2012년 6월 개통 이래 지금까지 모두 9번이나 된다. 그러니 오죽하면 사람들이 '자살대교'라 부르겠는가. 목포대교에서의 자살 기도 유형을 보면 다리 중간 지점에 자동차를 세워 놓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교량 길이가 3060m나 되는데다 왕복 4차로여서 자살을 예방하고 감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자살 방지를 위한 당국의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관리를 맡고 있는 익산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목포시, 그리고 경찰은 사건이 날 때마다 차량 순찰을 강화하고 보행자 출입 제한, CCTV 설치 등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무엇 하나 똑 부러지게 이행되고 있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워 당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다리에 설치된 6대의 비상전화 외에 자살 방지용 '생명의 전화'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서울의 마포와 한강·원효대교 등에는 지난 2011년 투신하려는 사람들의 심정을 들어주는 'SOS 생명의 전화'가 설치됐다. 이 전화 덕분에 2013년 10월까지 952명이 자살 기도를 멈췄다는 통계가 있다.

LED 자살 방지 문구를 다리에 새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과거처럼 말뿐인 예방 대책을 계속해서는 '목포대교는 자살대교'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無 等 鼓

니트족

아라카와 도모노리(33)는 어렸을 적부터 학교 가기가 너무도 싫고 힘들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 꾸역꾸역 버티며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명문 교토대에 들어갔다.

6년 걸려 대학을 간신히 졸업한 후 회사에 적을 뒀지만 3년만인 스물 여덟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 '인터넷만 있으면 직업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어렸을 때부터 그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게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었으니, 어쩌면 먼 길을 돌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셈이었다.

인터넷 닉네임 '파'로 불리는 그가 펴낸 '빈둥빈둥 당당하게 니트족으로 사는 법'에는 니트족의 독특한 생존법이 담겨 있다.

니트족은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직업훈련을 받지도, 구직활동을 하지도 않는 무리나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인 'NEET'에서 유래한 신조어다.

일본 뿐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에도 니트족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국내에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전혀 하지 않는 니트족은 2000년 47만1000명에서 2013년 84만5000명으로 배가까이 늘어났다.

책의 내용이 일본 상황이라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삶의 의미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저자는 실제 니트족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당연시되고 있는 코스가 그렇게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 당신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구직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숨막히는 상황에 구멍이 뚫리는 기분이라도 들지 않겠냐고 말한다.

체면이라든지, 도무지 누가 평가하는지도 모르는 평판 따위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번쯤은 생각해보라는 제안도 새길 만하다.

책 뒷편에는 니트족 체크 포인트가 실려 있다. 몇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것들이다. '회사나 학교에 가는 게 너무 힘들다', '혼자 있는 게 좋다',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다', '가난하게 사는 게 별 문제가 안 된다', '요리는 잘한다' 등.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32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